

기아,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 양산

광주 하남공장서 출고 기념식

48년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
이달부터 육군 인도·판매망 확대



기아 오토랜드 광주 하남공장서 생산하는 중형표준차5톤 모델.

〈기아 제공〉

기아가 48년 만에 국내 유일 광주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군용 중형표준차(KMTV·Kia Medium Tactical Vehicle) 양산을 본격화한다.

기아는 10일 오토랜드 광주 하남공장에서 KMTV 양산 출고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기아, 국방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양산되는 중형표준차는 1977년 이후 48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로, 2½톤과 5톤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옵션을 단순화한 군용차인 예외 어라운드 뷰,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최신 편의 사양이 대거 포함됐다.

2½톤에는 280마력, 5톤에는 330마력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다. 또 수심 1m 하천을 건널 수 있는 기능과 60% 종경사(전·후진으로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40% 횡경사(옆으로 기울인 채 주행) 주행, 전자파 차단 설계, 영화 32도 냉시동, 공기압이 손실된 상태에서도 주행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 최대 25명(5톤 기준) 탑승 가능 등 다양한 기능과 수송 능력을 갖췄다.

기아는 2019년 12월 육군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제품 개발, 개발 시험·운용시험평가, 초도 시험·선생산 등 과정을 거쳐 양산에 나서게

됐다. 이달부터 육군에 중형표준차를 인도하고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군용차량은 합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적용해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특수차량을 개발하는 등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한국 군용차의 역사와 함께했다. 1985년 국내 유일

의 특수차량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 뒤 1997년 신형 지프(K-131)를 양산하고, 2001년 15톤급 중장비 수송차량(트랙터)을 군에 납품하는 등 다양한 군용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 최초 다목적 전술 차량인 소형전술차(KLTV·Kia Light Tactical Vehicle)를 양산했으며,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동남아·중남미 등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근엔 폴란드 군용차량 교체 사업에서 신규 차량으로 선정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40개 업체 소비시장 소비자 신뢰 1위는 새벽배송 결혼서비스 꼴찌

스드메 불투명한 가격 불만 고조

국내 소비자들이 평가한 40개 업체별 소비시장에서 ‘결혼 서비스’가 최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킹업)’로 대표되는 결혼 서비스가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 책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서비스 부문별로 각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점수를 조사한 ‘2024년 소비자 시장 평가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0개 소비시장에 대해 각 시장별 1000명씩 총 4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 선택 가능, 가격 공정성, 불만·피해 정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가장 혹평을 받은 소비시장은 ‘결혼 서비스’였다. 결혼 서비스는 50.4점을 기록해 전체 조사대상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 항목별로 40개 소비시장 평균점이 각각 58.2점, 60.7점, 61.8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보다도 13~15점이나 낮았다. 또 결혼 서비스의 소비자불만·피해 항목 역시 78.4점을 기록했지만, 전체 평균(92.7점)보다 낮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스드메 가격이 소비자

가 판단할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비용이 추가 청구되는 등 지극히 당연했던 결혼 서비스 소비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서비스 외 교복(64.8점), 주택수리·인테리어(59.4점), 동물병원(61.9점), 산후조리 서비스(62.5점) 등이 소비자 지향성 점수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들이 가장 호평한 소비시장으로는 ‘새벽배송(71.8점)’이 꼽혔고, 건강기능식품(70.3점), 생활화학용품(70.2점), 일반병원 진료(69.7점), 항공 서비스(69.8점)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혹평한 하위 5대 시장 중 4개가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서비스와 동물병원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소비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압도적인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경우 연구 후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달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가총액 3조원 가까이 증가

한전 3조 172억원 18.3% 늘어

지역 투자자들 주식거래는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시총)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선전으로 1달 전보다 3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5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 38

사의 시총은 지난달 말 기준 25조 7630억원으로 전월(22조 7684억원) 대비 2조 9946억원(13.2%) 증가했다.

특히 한전의 시총이 한달새 3조 172억원(18.3%) 증가한 19조 4836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 역대급 구조 해소로 인한 영업 흑자 전환에 이어 막대한 누적적자 일부 해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보해양조가 15.9% 오른 760억원, 화천기공은 8.6% 오른 6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시총 상

승 상위 종목에 들었다.

코스닥에서는 그린생명과학 시총이 792억원으로 144.6%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고, 에스오에스랩은 2297억원으로 481억원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는 전월보다 감소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2조 2880억원으로 1달전보다 9.4% 줄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1조 3704억원으로 전월 대비 550억원(3.9%) 감소했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1812억원(16.5%) 적은 9176억원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일 경험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광주상공회의소가 2025 프로젝트형 일 경험 프로그램 1차 연수과정을 마치고 9일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일 경험 프로그램은 연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들이 기업에서 제안한 실무 기반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 중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1차 프로그램은 지난달 9일부터 한달간 운영됐다. 광주상의의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 2차 과정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광주은행, iM뱅크와 영호남 상생 달빛동맹 교류 행사

담양서 지역봉사·체험 활동

광주은행은 “지난 9일 담양군에서 iM뱅크와 영호남 상생발전 및 화합을 위한 ‘달빛동맹 교류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금융기관 교류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은행과 iM뱅크는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해 봉사활동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행사에는 고령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등 양사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달빛꾸러미’ 제작 봉사활동, 명인과 함께하는 담양 한과 만들기 체험,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기원하는 소원패 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담양군 지역 특산품인 유과와 강정 등을 담은 ‘달빛꾸러미’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다.

고령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과 iM뱅크가 함께하는 달빛동맹 교류행사는 지역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공

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현행 수준 요금제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다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잠시 구독을 쉬기도 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조건이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연합뉴스

서학개미 5월 미국 주식 평균 수익률 6.9%

미중 관세휴전에 상승 전환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자 지난달(5월) 국내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자사 고객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미국주식 평균 수익률이 6.9%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3월(-2.8%)과 4월(-2.1%) 두 달 연속 이어진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상승 전환한 것이자 올해 1월(8.7%)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기도 하다. 2월 평균 수익률은 4.0%로 집계된 바 있다.

지난달 수익률이 상승 전환한 것은 세계 경제를 위기에 내몰았던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선 영향이 컸다.

양국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올해 상호 간에 부과했던 대부분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갈등 완화로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되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한 달간 3.94%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6.15%, 9.56%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평균 5.6%를 기록해 4월(-2.4%)과 비교해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TSL), ‘반도체 3배 레버리지’(SOXL) 등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은 물론 애셋 엔티티즈(ASST),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NXTT), 샤프링크게이밍(SBET) 등 지난 한 달간 급등한 종목에 매수세가 몰려,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40~50대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 8.1%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71.85 (+16.08)
↑ 코스닥	771.20 (+6.99)
↓ 금리 (국고채 39년)	2.385 (-0.020)
↑ 환율 (US D)	1365.55 (+9.25)
〈오후 4시 35분 기준〉	

상반기 삼성전자 ‘가전 3대장’

에어컨·냉장고·세탁기 판매 증가

올 상반기 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가전 3대장’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5월 가정용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누적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5월에는 작년보다 한 달 앞서 일평균 1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 비스포크 4도어 키친핏 냉장고의 1~5월 누적 판매량도 작년 동기 대비 약 40% 늘었다.

같은 기간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의 누적 판매량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간 판매량은 출시 이후 처음 1만대를 넘어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분기 부동산업 대출 12년 만에 첫 감소

건설경기 불황에 2.5조원 줄어

지방 상업용 부동산 부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5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2000억원)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지방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건설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탓에 세 분기 연속 줄었으나, 전 분기(-1조2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중 1조6000억원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53조7000억원에서 1261조5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었다. 전 분기(+3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전산업 대출금은 197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